

7월 지육시세는 3,60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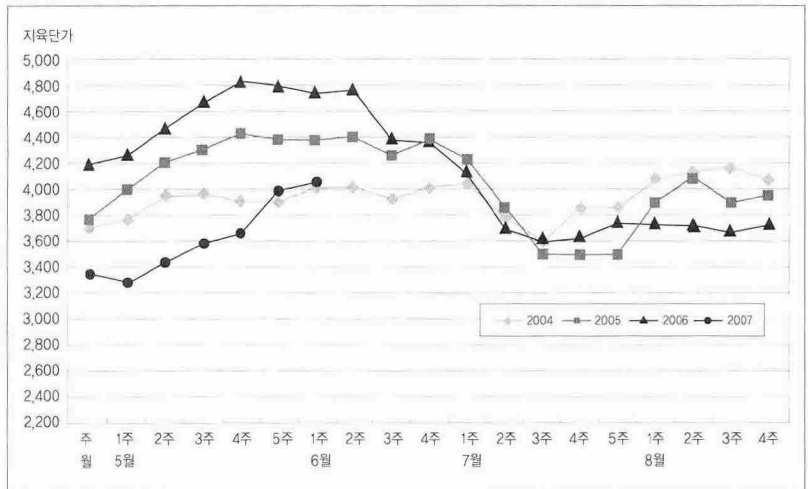
6월에 들어서면서 돈가는 언제 떨어졌나 싶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돈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은 소비 증가와 함께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추세가 5월부터 주춤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곡물가격의 상승과 유류가격의 상승은 향후 양돈 경영 환경을 압박하며 양돈 농가들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FTA이후 양돈 산업의 변화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많은 양돈 농가들이 양돈 산업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국내 양돈업을 더욱 어렵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시련이라면 담대한 마음으로 한국 양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장 차원의 대책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농장의 대책은 질병 퇴치와 MSY 향상을 위한 농장 단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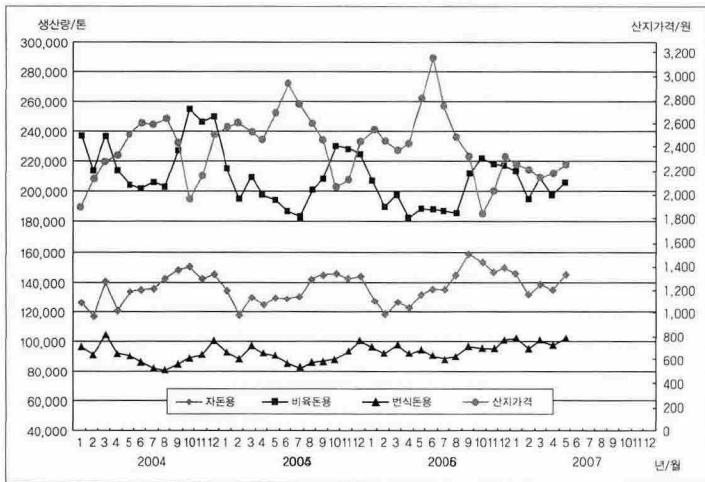
이미 우리나라 육류 시장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과잉 공급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과잉 공급 상태에서 형성된 지육단가는 평균 3,301원이었다

지육단가 3,301원은 전국 평균 양돈 생산비 수준 이하이지만 MSY 18두 이상 농장에서는 수익을 얻는 정도이기 때문에 농장의 생산 실적 향상에 주력한다면 그렇게 두려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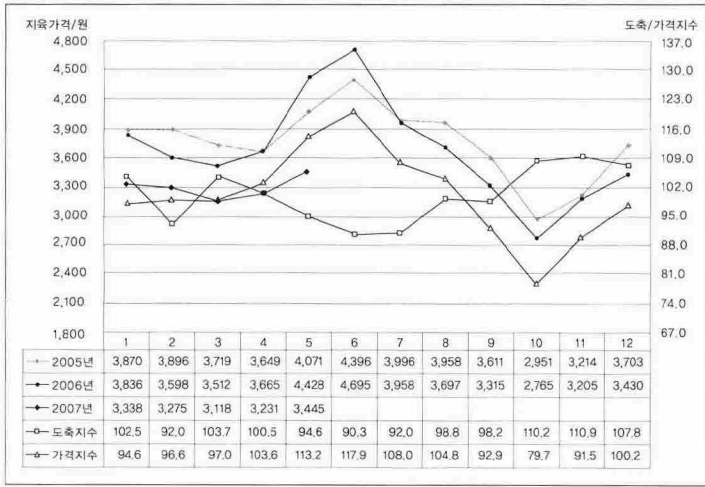
금년 5월 소 도축두수는 52,049두로서 전월 대비 6.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7.9%증가 하였고 돼지도축두수는 1,163,446두로서 전월 대비 3.7% 증가, 전년동기 10.4% 증가 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량은 11,665톤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15.7%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101,737톤으로 7.7% 증가하여 향후 양돈 사료 생산량의 증가로 장기적인 추세가 돼지 출하두수는 200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료 생산량 뿐만 아니라 모돈의 사육두수 1,011,032두 또한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하여 향후 10개월 이내에는 국내 돼지 출하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돼지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평균 성적 이하 농장에서는 생산비 수준을 밑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시장은 공급 과잉의 감소와 소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이지만 7월은 전통적인 보양식 소비 증가와 돼지고기 소비가 7월 15일 전후로 줄어들어 돼지가격의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금년 7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돼지 지육단가는 3,600원을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여 2007년 국내 시장에 공급된 소, 돼지 전체 육류 공급량은 107,981톤으로 추정되어 전월 대비 약 4.1%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육류 시장의 전체 육류 공급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특히 수입 돈육과 쇠고기의 수입량 감소는 6월과 7월의 돈육 시장에서 소비량 증가 추세만 이어준다면 돼지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와 장마가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의 자돈 사료 생산량은 144,221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하여 2007년 7월과 8월의 돼지 출하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번식돈 사료 생산량도